농지이양 은퇴 직불제 추진

김인수 기자 입력 2024. 2. 15. 10:38

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65~79세 고령 농업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올해부터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전경.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 등에 이양(매도·매도 조건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 조성에 활용된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는 진흥 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진주산청 관계자는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 도입을 통해 농업·농촌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과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